

BTCC

## “신규 유저 한정

BTCC에 가입 및 입금하고 최대 17,500 USDT를 받으세요!  
친구 초대 시 더 많은 리베이트 획득 가능



지금 가입

# 미 연준, 기준금리 0.5%p만 인상...단 금리 인상 지속 예고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us-fed-raises-interest-rate-by-0-5p-expected-to-continue-raising-interest-rates>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예정대로 기준금리 0.5%p(빅스텝)를 인상했다.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씩 인상)을 밟은 뒤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을 예고했다.



## 금리 0.50% 포인트 인상

14일(현지시간) 연준은 13일, 14일 이틀 동안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는 기존 3.75~4.0%에서 4.25~4.5%로 0.50% 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래 가장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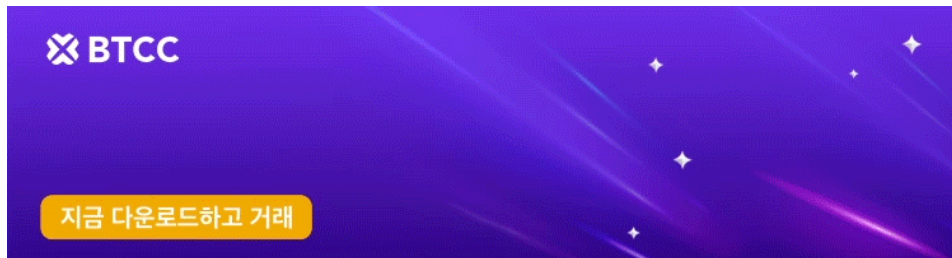
연준이 6월 이후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인상을 선택한 뒤 12월 인상 수준은 0.5%포인트로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꺾이는 추세가 영향을 미쳤다. 하루 전인 13일 발표된 미국의 전년 동월 대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1%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6월에 9.1%로 정점을 찍은 이래 7월 8.5%, 8월 8.3%, 9월 8.2%, 10월 7.7%로 둔화 추세가 이어져온 터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소식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다”고 반응했다.

또한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피로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최근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각종 경제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면 연준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강경 발언들을 내놨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 지속 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진정을 확신하기 전까지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023년에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의 설문 결과인 ‘분기별 경제전망’(SEP)을 언급하면서 “SEP에는 없다”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파월 의장은 “10월과 11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가격 상승 속도에서 환영할 만한 감소세를 보였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하향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 경험은 성급하게 정책을 완화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다”며 “연방공개시장위는 인플레이션이 일관되게 (목표치인) 2%를 향해 움직인다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0.50%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린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 예상치는 5.00~5.25%(중간값 예상치 5.1%)였다. 즉, 내년 9월 예측치 4.6%에서 0.5%p나 높아졌다. 2024년, 2025년 금리중간값도 각각 3.9%에서 4.1%로, 2.9%에서 3.1%로 0.2%씩 올랐다.

내년에도 추가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다.

당장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기대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파월 의장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지 말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결국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확실히 경기침체를 더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미국의 물가 오름세 추이가 어떻게 변하고, 연준이 이에 맞춰 얼마나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금융시장 등의 큰 관심사다.

## 미 금리가 한국과 1.25%p 격차

미 연준이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 기준금리와 격차가 22년여 만에 가장 큰 1.25%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에서 빅 스텝으로 긴축 속도가 줄었지만, 연준의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오히려 4%대에서 5%대로 높아진 만큼 앞으로 한미 금리 차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까지 빅 스텝은 아니더라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한 금리 격차를 방치하면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져 겨우 진정된 물가까지 다시 들쭉날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신규 유저 한정 이벤트\(입금 및 거래 시 10,055USDT 보상\) <<<<](#)

## 한은, 내년 기준금리 3.50% 인상 가능

연준의 빅 스텝으로 한국(3.25%)과 미국(4.25~4.50%)의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벌어졌다.

1.25%포인트는 2000년 10월 1.50%포인트 이후 가장 큰 금리 역전 폭이다.

더구나 점도표에 찍은 대로 연준이 이번 인상기 최종 금리 수준을 5% 안팎까지 높일 경우, 한미 금리 차는 역대 최대 수준인 1.50% 또는 그 이상까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4일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한 뒤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다수 위원이 3.50% 제안했다”고 답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도 내년 1월 13일 베이비 스텝을 시작으로 당초 시장의 전망보다 더 오래,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3.50% 이상 기준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 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BTCC에 대하여

- 세계 최저 수수료 **(0.03%)**
-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 무료 모의 거래 가능
- 원화입금 지원
- 24x7 시간 한국어 고객센터 제공
-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 PC/모바일 거래 가능
- 다양한 이벤트

관련페이지:

[미 연준, 0.75%p 금리인상...4 연속 자이언트 스텝, 위험자산 급락 - BTCC](#)

[파월 연준의장, 12월 금리인상 속도조절 시사...비트코인 꺾춤 - BTCC](#)

[美 연준, 3일 금리 인상 발표 앞두고... FOMC 후 BTC 가격 변화 돌아보다 \(btcc.com\)](#)

[파월 '매파분색'에 한은 연말까지 기준금리 인상 이어갈 듯 - BTCC](#)

[파월 美 연준 의장 "물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 계속 인상할 것" - BTCC](#)

[달러 인덱스\(DXY, 달러지수\)란?그는 코스피, 암호화폐와 어떤 관계인가? - BTCC](#)

[미국 주식 시황 확인 방법은? 3대 지수 및 VIX 지수... - BTCC](#)

[테슬라 주식 사도 됩니까? 테슬라 주기 미래 전망 및 투자 방법 소개 - BTCC](#)

[구글 알파벳 A,C 주가 및 투자 궁금이라면, 여기 구글 주식 전면 소개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BTCC 4가지 선물계약 유형 소개! - BTCC](#)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